

속리산 산행기

이혜연

〈예우산악회 부회장·본회 전문위 여성분과위원장〉



새벽 5시.
머리맡 양쪽에서 삐약삐약, 껍뻍 자명
종이 울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
어나 산에 갈 준비를 했다. 평소에는 게으
름을 피우면서도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일
찍 일어나는 것은 아마도 산이 나를 부르
기 때문이리라.

집을 나서니 다행히 날씨는 맑게 개어
있었다. 이틀씩이나 흠뻑리던 겨울비가 몹

시 거슬렸는데... 무심코 바라본 하늘에서 빛나는 북두칠성. 오늘은 왠지 좋
은 일이 있을 것만 같다.

7시30분에 모여 속리산을 향해 출발했다. 나들이철이 지난 때문인지 고속도
로는 한가했다. 썩썩 달리는 양 옆으로 야트막한 산과 들녘이 정겹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반국도로 접어들자 길이 구불텅구불텅 했다. 대관령,
한계령 같은 굴곡을 잘도 빠져 나가며 정말 우리나라는 산이 많구나 실감하게
된다.

3시간 남짓 달린 끝에 충북 보은에 위치한 속리산 입구에 도착했다. 국립공
원협회 속리산지부 회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후 산행을 시작
했다. 산을 오르며 길 옆 나무에 붙은 표찰을 보니 보리수나무, 비목 등 들어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는 희귀한 것들이었다. 잎을 떨근 모습이 아
쉽기는 했지만 '이런 나무로구나' 한가지씩 배우며 발걸음을 옮겼다.

속리산은 입구부터 아주 옷 땀이 튀어난 중년신사 같았다. 계곡에 열한 숲

의 짙은 짙은 고목은 보는 이마저 후련하게 해 주었다. 게다가 엇그제 내린 비 덕에 계곡물은 마냥 맑고 푸르니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봄날을 연상하게 한다.

문장대를 향해 오르는 길은 무수한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르면서 '이뿏꼬다리'를 지났으니 오늘은 그것으로 화두를 삼을 수밖에.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땀이 겹겹이 입을 옷을 거추장스럽게 만들었지만 코를 얼리는 날씨 보다는 한결 낫다고 입을 모으며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갔다.

두 시간 정도 오르자 꼭대기에서 우리를 보고 손짓하는 '시커먼스'의 모습이 보였다. 다 왔다는 안도감에 기운을 내어 뛰어 올라가니 드디어 문장대. 내려다보이는 산세를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다.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를 아우르는 산의 웅장함. 산 너머 산, 그 산 넘어 또 산이 빚어내는 갈피갈피 마다의 속내를 어찌 다 음미할 수 있으랴. 바로 이런 맛이 나를 새벽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속도가 붙어 마냥 우쭐대는 강아지 모양이다. 산도 덩달아 그림자를 길게 늘이며 나를 따라온다.

다 내려오니 고즈넉히 저녁해를 받고 있는 산사. 문화제가 많기로 소문난 범주사다. 팔상전, 쌍사자석등을 비롯해 대웅전, 마애여래상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문화유산은 우리가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 정신의 기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물질문명에 휩쓸려 훼손되어 가는 문화제가 우리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살펴 보노라니 설핏 해가 넘어간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른 저녁을 먹기로 한 식당으로 발길을 옮긴다. 충청북도는 다른 도와 달리 바다가 없는 내륙이라 산채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며 들어가니 말로만 듣던 올갱이국, 파르스름한 빛깔의 조그마한 것이 입맛을 돋군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이 고장 출신 후배의 말이 생각난다. 호두 조림도 도회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별미다. 수저를 바빠 놀리며 속리산과 이별할 준비를 한다.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오늘도 자연이 나를 받아주고 품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ㄴㄴ